

창조적 패션디자인을 위한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 제안에 관한 연구 -미국, 유럽, 한국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최 경 희[†]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A Study to Suggest Korean Fashion Design Education Model for a Creative Fashion Design -Focus on Comparative Case Studies in the USA, Europe, and Korea-

Kyung Hee Choi[†]

Division of Apparel Fashion & Business, Hansung University

접수일(2011년 9월 15일), 수정일(1차 : 2011년 10월 22일, 완료일 : 2011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2011년 12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Korean fashion design education model through a comparison of the fashion design curriculum and education systems in the USA, Europe, and Korea. For this, a case study of fashion design curriculum and education systems in the USA was performed with literature reviews about education methodology and design process to develop creativity, following the prior study, A Comparative Study on Fashion Design in Europe and Korea. For the case study, 12 superior fashion design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USA were chosen from fashionista (N.Y.) and the goals, the emphases, the constitution of the online curriculum of each undergraduate fashion design course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is study, Korean fashion design education model (1+2.5+0.5 model), was proposed by integrating the education systems of the USA and Europe, as follow: First, Korean fashion design education institutions need to be characterized and the departments/majors should be gradually specialized by the major. Second, foundation courses prior to undergraduate courses or during the 1st year should be established to result in a multi-disciplinary basic education. Third, a project based major needs to be performed that connects fashion design subjects with their related subjects for 2 and a half years as of the 2nd year. These projects can be progressed by problem-solving design process of problem-identification and brainstorming-research, analysis-design concept-design ideation, selection-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critical evaluation and solutions. Fourth, collaborative projects or integrated courses with related Liberal Arts or other art and design majors should lead to multi-disciplinary education. Fifth, the chance of increased active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and actual employment or enterprise can be facilitated by the establishment of only the courses related to domestic or international internships during the 2nd semester of the 4th year.

Key words: Creativity, Fashion design education, USA, Europe, Korea; 창조성, 패션디자인 교육, 미국, 유럽, 한국

[†]Corresponding author

E-mail: samchi28@hanmail.net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연구장려금 지원과제임.

I. 서 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세계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으로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뿐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전환기에 이에 대응하는 창조적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교육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Pink(2006/2007)는 현재 지식근로자가 주도하는 정보화 시대가 창의성, 감성 등의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한 창조근로자가 주도하는 ‘하이컨셉(High-concept)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창조성은 다양한 디자인 전공에서 중요한 발전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수단이자, 마켓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Lee, 2006). 디자인의 창의력은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무형의 첨단기술로, 이러한 창조적 디자인을 창출하는 인적 자원의 배출과 전문인력의 경쟁력 강화는 산업의 핵심역량이자 세계 일류화를 결정짓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디자인 교육에서는 고부가가치의 디자인 혁명과 디자인 리더십이 새로운 경쟁력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디자인 교육은 90년대 이후 양적 확장으로 인한 공급과잉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업계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비효율성을 띄어 왔으며, 패션디자인 교육 또한 산업체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의 미비로 국가적 차원의 부가가치의 손실을 야기해 왔다. 따라서 현재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할 만한 창조성 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패션과 같이 실무영역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다방면의 산학협동 체제를 요구하며, 학제적 교육방식을 통해 패션디자인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국내 패션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국내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육도 지속성장 가능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연구한 유럽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비교연구(Choi, 2011)의 후속연구로, 선행 연구에서는 세계 4대 패션컬렉션이 열리는 국가 중, 주로 기술 지향 창조적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주요 패션교육 기관과 한국의 4년제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를 비교·고찰하고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향방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성 개발을 위한 패션디자인 교육 및 프로세스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주로 비즈니스 지향의 창조성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국(“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2003)의 주요 패션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유럽과 한국의 교육사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보다는, 해외 패션디자인 교육의 선진적 사례를 응용하여 국내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발전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창조성 개발과 관련된 의류/패션 혹은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Choi(2001), Lee(2006), Fiore et al.(1996), Karpova et al.(2011)의 연구가 있다. 또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다룬 다수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중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나 방법론을 다룬 연구로는 Do(1996), Choi(1997), Watkins(1988), Lamb and Kallal(1992), LaBat and Sokolowski(1999), Shreeve et al.(2003), James(2007), Ames(2008), Han and Kim(2007) 등이 있다. 그리고 국내외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패션디자인 부문을 따로 다루기보다는 주로 패션교육 혹은 의류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다수로, 이들 중 특히 미국의 교과과정 혹은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Shin(2006), Dickerson and Clowes(1982), Laughlin and Kean(1995), Fiore and Ogle(2000), Ogle and Fiore(2000)의 연구가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교과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는 Ku et al.(1999)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마케팅 부문이 다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류학 교육 전반이 아닌, 국내의 주요 패션디자인 교육기관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한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 제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디자인 전 분야 혹은

은 패션디자인 분야의 창조성 개발 교육과 디자인 프로세스 혹은 방법론을 다룬 선행연구 및 저서를 살펴봄으로써 패션디자인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의류/패션 및 디자인 부문의 교육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후,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럽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의 개요를 살펴본 후, 미국, 유럽,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방법으로는 2011년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미국의 주요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을 선정해 각 대학/학교의 패션디자인 전공 홈페이지 및 브로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미국의 패션교육기관의 패션디자인 전공 전일제 학부과정(BA, BFA, 혹은 BS학위)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몇몇 대학원 중심의 우수한 예술대학은 제외시켰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온라인 패션정보사이트인 fashionista(N.Y.)의 The Top 50 Fashion Schools in the World(Wischhover, 2010)를 참조하였으며, 이 중 30위권 이내의 그룹에 속한 미국의 패션교육기관 13개 중, 패션디자인 부문의 학부학위과정이 없는 1곳을 제외한 1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12개 기관의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전공의 중점영역, 교과과정의 구성 및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대표적인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이며, fashionista에서 상위 랭킹을 차지한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Parsons)와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FIT)의 경우는, 주요 교과과정의 특성 외에도 해당 코스의 전반적 특성과 기타 산학연 방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설정 및 방법은 3장에서 다루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국내외 패션디자인 교육방법 및 프로세스에 관한 선행연구와 저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 제안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1C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창조

성이란, 개인의 사고나 기술에 의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 또는 재능으로, 개인의 사고 혹은 정신적 과정과 그 과정의 결과물을 지칭하며 이 결과물은 새로움을 지녀야 한다(Choi, 2001). 특히, 패션디자인 전공에서 창조성은 발전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마켓에서 상업적 성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조성은 그 자체의 특성과 개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Lee(2006)는 창조성 개발을 위한 패션디자인 교육방안을 직관력의 차원에서 연구하면서 창조성은 발전단계가 있고 통찰력있는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hoi(2001)는 패션디자인을 위한 창조적 발상모형을 제시하면서, 패션디자인에서의 창조적 발상은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반영하는 체계적이고도 분석적인 사고와 이를 표현할 조형적인 감각의 조화로, 기존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결합을 그 기본구조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창조성은 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통찰력과 더불어 일정한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며, 단순한 결과뿐 아니라 사고과정과 프로세스를 통한 타당성 검증을 필요로 하는 창조적 문제해결능력과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성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으며, 디자인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전개되는 과정을 순서별로 정의해 놓은 것으로, 창조적 문제해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크게 문제의 이해-해결안의 종합-해결안의 평가라는 세 단계의 순환적 프로세스로(Han & Kim, 2007), 패션디자인의 경우에도 그 프로세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DeJonge(1984)는 기능적 의복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했는데, 특히 디자인 프로세스의 첫 단계, 즉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한 후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정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리서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단계의 결과가 작품원형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Watkins(1988)는 창조적 문제해결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적 의복디자인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그는 Koberg and Bagnall(1981)의 7단계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수용(동기부여)-분석(문제인식을 위한 리서치)-정의(목표 설정)-발상(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과 성과)-선택(가장 창의적 디자인 유발)-수행(아이

디어를 가지고 작업-평가(디자인 프로세스와 작품평가의 관계)단계를 제시하면서, “창조적 도약(creative leap)”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들을 성실하게 따르는 데에 있으며 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디자인 교육이 보다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Lamb and Kallal(1992)은 어패럴 디자인 전반을 교육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틀로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위한 기능적-표현적-미학적(FEA) 소비자 욕구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은 Koberg and Bagnall(1981), Hanks et al.(1977), Watkins(1988) 모델들과 FEA 모델을 통합하여, 문제인식-예비적 아이디어-디자인 수정-샘플 개발-평가-수행의 6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발이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준다고 주장하였다. LaBat and Sokolowski(1999)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통상적인 과정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학 간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증진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들이 제안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정의와 조사-창조적 탐구-수행의 3단계로, 문제정의 및 조사는 광범위한 리서치와 의뢰인의 참여를, 창조적 탐구는 예비아이디어들의 유발, 디자인 수정, 샘플 개발 및 평가를, 수행단계는 제품생산, 판매, 소비자의 사용, 판매요구에 따른 변화가능성을 각각 포괄한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최종 제품에 대한 질을 보증하는 척도이며, 디자이너는 디자인 기준을 정해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mes(2008)는 패션디자인의 미적 표현들과 앞으로의 예측된 주요 문화적 지표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가지 종류의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패션예측 프로세스와 창조적 프로세스이다. 장기적인 패션예측 프로세스는 패션의 움직임의 특성과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강조하였고, 창조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들 간의 비선형적 구조를 보여주는 개인적인 창조과정의 개념적 모델로, 준비-문제의 발견 및 정의-다양한 접근들과 해결책 제시-발전과 설명-비평적 평가와 해결책-해결책의 채택이다. 한편, 이러한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를 상품기획 프로세스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이해단계에서 정보수집 및 분석과 표적시장 설정, 해결안의 종합에서 디자인 컨셉 설정, 디자인 개발, 샘플 개발, 그리고 해결안의 평가에서 품평 및 수주회, 마지막 실행단계에서 생산이 진행된다(Han & Kim, 2007; Lee, 1999).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창조적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는 크게 문제인식단계, 리서치와 분석 단계, 컨셉 설정단계, 디자인 발상과 선택단계, 디자인 발전 및 수행단계, 비평적 평가와 해결책 제안단계의 6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패션디자인을 단순히 결과만이 아닌 프로세스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리서치와 발전과정, 즉 R&D(Research & Development) 영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우하우스의 기초디자인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디자인에 대한 프로젝트 접근과 연결된다. 프로젝트는 문제해결방식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인 리서치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최종 디자인의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마켓, 문제에 대한 분석, 글이나 시각적 탐구 등을 통한 아이디어의 발전, 재료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종합 등을 포함한다(Shreeve et al., 2003). 따라서 패션디자인의 교육적 맥락에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아이디어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리서치를 강조하는 교과과정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패션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리서치의 접근방법 또한 다양한데, Shreeve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리서치에 대한 접근 방법은 논리적 계층구조를 이루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 순으로 4가지 범주, 즉 기술적 완성도를 제시하기 위한 제품 중심의 전략 -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품 중심의 전략 -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 중심의 전략 - 자신의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컨셉 중심의 전략으로 분류되어, 제품의 결과와 테크닉 중심으로부터 과정과 개념적 사고 중심으로의 발전과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프로젝트 방식은 학습에 대한 깊이있는 접근을 자극시킬 수 있는 맥락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리서치의 방법은 효과적인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조적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리서치를 통한 아이디어를 추상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통찰력의 획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비평적 사고를 요한다. James(2007)에 따르면, 이러한 비평적 사고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교육을 기반으로,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문화적, 이론적, 맥락적 연구요소들을 강조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기초교육, 즉 파운데이션 과정과 다학제적 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 혹은 시각적 리서치를 포함한 다양한 비평적 사고를 유도하는 교과과정 상의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창조적 패션디자인 교육은 단순히 창조적 제품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여러 단계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디자인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인 리서치 방법, 맥락적 요소에 바탕을 둔 기초디자인 교육, 다학제적 이론교육과 창조적 실기교육 간의 균형, 그리고 산학 간의 연결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시도와 교과과정과 결합된 적합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II. 미국, 유럽,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비교 · 고찰

본 장에서는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후, 유럽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방법 및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미국, 유럽,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을 비교 ·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미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과정-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이 일반적이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한국의 대학과 같이 매학기 필수과목과 교양과목을 이수하며 졸업 후 취업 혹은 대학진학 등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The education system”, 2010). 대학에서의 예술실기교육은 종합대학뿐 아니라 다양한 아트스쿨과 칼리지 등에서 이루어지지만, 아트스쿨은 독자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미술/디자인 전공학과/전공들이 독립적인 학부를 이루고 있으며 졸업 시 학사학위(BA, BFA, BS)를 수여받는다(Park, 2004).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는 2011년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라인 패션정보사이트, fashionista(N.Y.)의 The Top 50 Fashion Schools in the World(Wischhover, 2010)에서 랭킹 30위 이내의 미국의 패션교육기관 13개 중, 패션디자인 학부학위과정이 없는 1곳을 제외한 12개 학교/대학을 대상으로, 패션디

자인 학과/전공의 소속, 중점부분, 교과과정의 구성 및 비율,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이하 Parsons)-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FIT)-Kent State University(KSU)-Academy of Art University(AAU)-Drexel University(Drexel)-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Otis)-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SCA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RISD)-Columbus College of Art and Design(CCAD)-University of Cincinnati(UC)-Pratt Institute(Pratt)-California College of Arts(CCA). 여기에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전공 전일제 학부과정(BA, BFA, 혹은 BS학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FIT의 경우 BFA 4년 과정에 AAS 2년 과정이 포함되므로 두 과정을 모두 검토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패션디자인 교육기관들의 경우에는 AAS과정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KSU의 경우는 Track I(Conceptual design)과 Track II(Technical design & production)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 구성분석 시 이 두 과정을 별개로 두어 모두 13개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 12개의 패션디자인 교육기관 중, 상위권에 속한 Parsons(2위)과 FIT(5위)는 전편의 경우와 같이, 주요 교과과정의 특성 외에도 해당 코스의 전반적 특성과 산학연 방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선정된 12개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은 종합대학, 아트&디자인 칼리지, 아트스쿨 혹은 인스티튜트 등 그 형태가 다양한데, 특히 이처럼 상위권에 속한 기관들은 대체로 예술전문 칼리지가나 스쿨 혹은 인스티튜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전공은 그 소속에 있어서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0%가 예술 혹은 디자인 스쿨이나 칼리지 소속이었으며, 학과/전공의 명칭도 ‘패션디자인’ 혹은 ‘패션’으로 거의 유사하게 명명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별 중점부분이나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많은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에서 개념적 디자인과 기술적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디자인과 마케팅의 관계, 그리고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을 유도하며, 기타 패션디자인과 타 디자인 분야와 연결된 학제적 교육의 중요성, 글로벌 비전, 그리고 지속가능성, 창조성, 혁신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은 주로 크게 파운데이션-전공과목-교양과목으로 분류되었다. 파운데이션이 없는 학과/전공의 경우는 교양과목에서 관련 교과목들이 제공되었으며, 전

Table 1. The title and the emphasis of fashion design undergraduate courses in main fashion design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USA

Institution	Major/Dept. School/College	Emphasis or objective
Parsons	Fashion Design (BFA/BA) School of Fashion	- Aesthetic refinement with commercial savvy - Sustainable design as the core of the school - Bridg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Interdisciplinary problem-solving education
FIT	Fashion Design (BFA) School of Art & Design	- Hands-on, practical instruction with high-level creative insight - Close ties to the industry - A rigorous grounding in the practical and technical skills - A college of a State University of the New York system
KSU	Fashion Design (BA) School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Track I – Conceptual design: To emphasize conceptual design with strong illustration skills, and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design process from concept to creation
		Track II – Technical design & production: To emphasize problem solving and technical design skills with strong construction skills for a specific market
AAU	Fashion (BFA) School of Fashion	A global vision that combines excellence in design, artistic vision, and innovative technology
Drexel	Fashion Design (BS) Antoinette Westphal College of Media Arts and Design	To integrate an understanding of art, craft, and design with the creation of clothing for the marketplace.
Otis	Fashion Design (BFA) (without any college or school)	- To train in all aspects of the design process, working with professional faculty and guest design mentors - Otis'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embraces new technologies and emerging disciplines, combining these with established traditions with longtime strengths in fine arts and design.
SCAD	Fashion (BFA) School of Fashion	- To offer select students the opportunity to work one-on-one with industry professionals - To offer vast resources for research and reference in state-of-the-art facilities
RISD	Apparel Design (BFA) In division of Architecture + Design	- To meet the highest requirements of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each stage of the design process as you create everything from functional to experimental clothing
CCAD	Fashion Design (BFA) (without any college or school)	- To achieve a balance of trend-setting innovation and an intelligent sense of style - To offer both design and technical skills through all aspects of garment design and construction
UC	Fashion Design (BS) School of Design	The emphasis on both the form and the function of a design – its expression and how it moves and fits the body
Pratt	Fashion Design (BFA) School of Art & Design	- To design apparel for various markets by emphasizing both the technical and creative aspects of the industry - To offer interdisciplinary studies with other creative design areas.
CCA	Fashion Design (BFA) (without any college or school)	- Time-honored skills of fashion practice w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ustainability, conceptual fashion design, and interdisciplinary thinking - The program fosters creativity, curiosity, and innovation

공교과외의 경우도 주전공과 전공 관련(혹은 전공보충) 교과목으로 세분화되기도 하였다.

파운데이션 교육의 개념은 단순히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기법과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라기 보다

는, 예술활동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바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Moon, 2006), 본 연구에서 파운데이션 코스를 개설하고 있는 패션디자인학과/전공의 경우 미술/디자인 실기와 비평적 이론을

결합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조직적인 디자인 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학부과정의 전공 영역에 대한 결정을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관련 전공들에 대한 학제적 교육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12개 패션디자인 교육기관 중, 총 7개(58%) 패션디자인 학과/전공이 학부제 혹은 학과제 형태로 1학년 과정의 전체 혹은 부분으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다. 각 교육기관별 구체적인 파운데이션 개설과목은, 다음 <Tabl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체로 2D 디자인, 3D 디자인, 드로잉, 색채, 미술과 디자인 이론 교과목이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파운데이션 코스 내 교양과목으로 미술사, 문화이론,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등이 주로 나타나 실기와 이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의 경우 대부분 필수과목에 소수의 선택과목이 있었으며, 전공영역별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편에서 한국의 의류/패션 관련 학과/전공의 교과영역 분류기준(패션디자인, 복식문화/미학, 패션비즈니스, 의복구성, 의류과학, 산학연 관련, 기타의 7영역)을 토대로, 패션디자인 분야를 좀 더 세분화시켜 크게 전공핵심과목(Fashion design core)과 전공보충과목(Related support core)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전공핵심

과목의 경우, 연구대상인 학교/대학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디지털 디자인, 소재디자인, 패션드로잉, 패션디자인(졸업작품전 포함)으로 세분화시켰고, 전공보충의 경우에는 전편의 분류기준 중, 패션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인 의복구성, 복식문화/미학, 패션비즈니스, 의류과학, 기타, 그리고 산학연 관련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교과목 영역별 교과과정의 분류를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의류/패션 분야의 전문가 3인의 분류와 2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분류기준의 타당성을 위해 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과목별 코스설명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본 고의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인 교육기관별 과목 분류표는 생략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교과과정의 학점수가 미기재된 몇몇 경우가 있어 과목수를 기준으로 교과과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도출된 13개의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영역별 교과목 수와 비율은 다음 <Table 3>과 같다. 첫째, 미국의 주요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의 교과목 구성은 파운데이션-전공과목-교양과목이 대략 각각 11%-56%-33%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의 패션디자인 학과/전공은 모두 패션디자인 전공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전공심화과정으로, FIT와 같이 복종별 세

Table 2. Foundation subjects in fashion design course in the main fashion design institutions in the USA

Institution	Foundation course
Parsons	2D Integrated Studio1,2, Laboratory 1,2, 3D Studio 1,2, Drawing Studio1,2,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1,2, And Perspectives In World Art and Design 1,2
FIT	No foundation course
KSU	No foundation course
AAU	No foundation course
Drexel	No foundation course
Otis	Connections Through Color, Drawing & Composition I, II, Creative Practices and Responses (Or Life Drawing II), Form and Space I, II, Life Drawing I, Principles Of Design, Studio Elective + (<i>Liberal Arts In Foundatio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Modern Art History, Critical Analysis and Semiotics, Composition and Critical Thought, Cultural Studies, Resources</i>)
SCAD	Drawing I: Form and Space, Drawing II: Composition and Media, Life Drawing I, Design I: Elements and Organization, Color: Theory and Application, Design II: 3-D Form in Space, Creative Thinking Strategies
RISD	3 programs - Drawing; Design; Spatial dynamics
CCAD	2D Design, 3D Design, Color Concept, Fundamentals of Painting, Drawing I: Fundamentals, Drawing II: Figure and Anatomy, Freshmen Seminar, Structural Drawing, Digital Design & Type
UC	Foundation studio drawing, Foundation studio color, Digital Design Fundamentals (Foundation Drawing 1,2, Foundation 2D design, Foundation 3D design, in BFA Fashion Design course)
Pratt	No foundation course
CCA	Drawing 1, 2D, 3D, 4D + (<i>Liberal arts in foundation: English 1, Introduction to the Arts, Introduction to Modern Arts, Foundations in Critical Studies</i>) + 2 Electives

Table 3. The number and the proportion of subjects by subject area of the curriculum for undergraduate fashion design courses in the USA
(Unit: number (%))

Institu-tion	Subject area	Founda-tion	Liberal arts	Major subject	Fashion design core					Related support core					TTL	
					Port-folio	Digital design	Textile design	Fashion Drawing	Fashion design (including final project)	Garment construction	Dress history/ Aesthetics	Fabric science	Fashion business	Other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Parsons		12 (31)	10 (26)	17 (43)	0	4	0	2	6	3	0	2	0	optional	39 (100)	
FIT (including AAS)		0 (0)	17 (28)	43 (72)	3	4	4	2	10	13	2	0	3	0	2	60 (100)
KSU (Track I)		0 (0)	13 (30)	30 (70)	2	1	1	3	8	4	1	0	8	2	43 (100)	
KSU (Track II)		0 (0)	13 (28)	33 (72)	0	1	3	3	7	8	1	0	8	2	46 (100)	
AAU		0 (0)	18 (41)	26 (59)	1	1	2	3	8	9	1	0	1	0	0	44 (100)
Drexel		0 (0)	32 (58)	23 (42)	1	1	2	5	7	4	2	0	1	0	0	55 (100)
Otis		15 (28)	8 (15)	31 (57)	1	4	0	9	9	3	2	2	1	0	0	54 (100)
SCAD		7 (19)	13 (36)	16 (45)	1	1	0	2	4	4	1	1	1	1	0	36 (100)
RISD		10 (29)	10 (29)	14 (42)	0	0	2	7	4	1	0	0	0	0	0	34 (100)
CCAD		9 (19)	21 (45)	17 (36)	1	1	2	3	8	1	0	0	0	1	1	47 (100)
UC		4 (9)	12 (27)	29 (64)	1	1	2	2	8	6	2	1	3	1	2	45 (100)
Pratt		0 (0)	15 (34)	29 (66)	1	2	0	4	6	6	2	2	0	4	2	44 (100)
CCA		10 (24)	12 (28)	20 (48)	0	0	0	4	6	5	1	0	1	3	0	42 (100)
TTL		67 (11)	194 (33)	328 (56)												589 (100)

분화가 나타나기도 하며, KSU와 같이 패션디자인 전공을 개념적 디자인(conceptual design)과 기술적 디자인과 생산(technical design & production)의 두 가지 전공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셋째, 주요 전공교과목은 패션디자인 영역을 중심으로 패션드로잉, 포트폴리오, 디지털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교과목이 패션 디자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패션디자인과 의복구성영역이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공 내 교과목간 연계 정도가 높다. 넷째, 복식사/미학과 소재과학의 경우 전공과목 혹은 교양과목으로 분산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의 경우도 패션디자인 전공의 보충과목으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다. 다섯째, 전공보충과목이나 교양과목에서 타 디자인 영역과의 학제 간 교육을 시도하기도 하며, 거의 모든 학교/대학에서 인턴쉽 등 산학연 교과목뿐 아니라 업체 전문가 크리틱, 업체 후원 프로젝트 및 공모전 등의 다양한 산학연 시도들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교양과목의 경우는 연구대상 패션디자인

교육기관 모두에 나타나며, 약 30% 정도의 필수 혹은 일반적으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학년 파운데이션 과정이 없는 경우도 4년간의 교양과목을 통해 전공기초 혹은 전공보충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의 교양과목 구성을 분류한 결과 드러나는데, 공통적으로 언어(글쓰기, 읽기, 말하기 등), 자연과학/수학, 사회과학, 예술/인문학, 역사 등으로 구성된 일반교양과 드로잉, 회화, 디자인, 미디어, 사진, 미술/디자인사, 복식사, 문화이론, 소재연구, 경영/경제학 등 타 시각예술 및 마케팅 관련 영역을 구성함으로써 다학제적 학습 및 전공보충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는 지면의 한계상 생략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인 Parsons와 FIT를 통해 본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특징은 다음 <Table 4>와 같다.

이상으로부터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은 종합대학에서부터

Table 4. Fashion design education in the USA

Section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Institution	Parsons, The New School fo Design (1896-)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1944-)
Category	Fashion Design (BFA/BA) in School of Fashion for 5 schools	- Fashion Design (BFA), one of 17 majors for School of Art & Design of 5 schools - Courses more subdivided by apparel type
Emphasis	- Aesthetic refinement with commercial savvy - Sustainable design as the core of the school - Bridg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Interdisciplinary problem-solving education	- Hands-on, practical instruction with high-level creative insight - Close ties to the industry - A rigorous grounding in the practical and technical skills - A college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ystem
Structure	Year 1: Wide foundation program Year 2-3: Intensive fashion design course with the other subject areas (Fashion design core, Fashion digital studio, Fashion drawing, Art or fashion history, Fashion industry survey) Year 3: Internship Year 4: Thesis project with a portfolio and competitions	- Major area, related area, and liberal arts without a foundation program Year 1-2 (for AAS): Training in the techniques of fashion art and apparel design+Liberal arts (choice between apparel concentration and art concentration in semester 4) Year 3-4 (for BFA): Continued fashion design concentrating on a specific major (among children's wear, Intimate apparel, Special occasion wear, Sportswear and Knit wear) Year 4: Internship, Senior collection with portfolio
Multi-disciplinary education	- Efficient foundation program - Multiple-school structure: school of fashion for 5 interdisciplinary schools -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tensive studio-based projects with design research	- Efficient 4-year liberal arts and related areas, as well as major area - Fashion design subjects in relation to other areas, such as Marketing, Textile & Construction - 2-year international AAS and 4-year BFA program available in USA and Italy
Main characteristics	-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design and practical skills for market - The curriculum of (foundation) – major core - related support core – liberal art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via foundation course in 1 st year or liberal arts for 4 years - Efficient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Section 2	General course characteristics	
Major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Period	4-year program	1 or 2-year program for AAS 4-year program for BFA
Graduation criteria	- 134 credits for BFA (including foundation 36), 180 for BA/BFA - 3 collections as the thesis project, one of them is completed and presented - A portfolio and a documentation of the collections - Internship (optional)	- 66-66.5 for AAS + 60.5-62.5 for BFA = 126.5-129 credits - Senior collection + port-folio + internship at semester 8
Degree	- BA/BFA (Hons) (including foundation courses)	- BFA after 4-year program - AAS after one-year or two-year program
Faculty	14 full-time professors and many part-time professionals in school of fashion	- Lots of professional faculty members + industry leaders
Section 3	The others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 Professional internship: a minimum of 90 hours for the 15 week semester - Design critic of a jury of jndustry professionals	- Several courses in relation to industries (industry leaders' mentoring) - Internship for 12 weeks at semester 8 - Field trips, including museums, galleries or shops
Career Prospects	Designer, assistant designer, technical designer, stylists, collection specialist or fashion executives.	

아트스쿨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미국의 주요 패션디자인 교육기관들은 대체로 아트&디자인 칼리지나 아트스쿨 혹은 인스티튜트에 속해 있으며, 모두 예술 혹은 디자인 계열에 패션디자인 전공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교육목표에 있어서 디자인과 마켓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디자인에서의 혁신성과 개념적, 예술적 사고를 테크니컬한 기술과 결합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의 패션디자인 학부는 대체로 4년제이며, BA, BFA 혹은 BS를 수여받고 교과과정은 파운데이션-전공(전공핵심-전공보충)-교양으로 구성된다.

넷째, 많은 학교/대학에서 학부 혹은 학과제 형태로 1학년에 파운데이션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창조적 문제 해결능력뿐 아니라 전공분야 외 타 예술디자인 분야와의 학제적 교육을 유도한다. 대체로 파운데이션 교과목은 2D, 3D, 드로잉, 색채, 미술과 디자인 이론으로 구성되며, 파운데이션이 없는 학교/대학의 경우 교양과목으로 이를 보완한다.

다섯째, 전공교과목은 전공영역인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의복구성, 패션비즈니스, 복식사/미학, 소재과학 등의 영역이 디자인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패션디자인과 더불어 의복구성 영역이 디자인과의 긴밀한 연계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섯째, 교양과목의 경우 언어, 자연과학/수학, 사회과학, 예술/인문학, 역사 등의 일반교양과 타 시각예술 영역 및 마케팅 관련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특히 미술사나 미술이론, 그리고 디자인과 연계된 언어적 부분이 강조된다.

일곱째, 인턴쉽 등 산학연 교과목의 활성화, 업체 전문가 세미나 및 디자인 크리틱, 업체 후원 프로젝트와 공모전 등 다양한 산학연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된다.

2. 유럽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유럽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세계 4대 패션컬렉션이 열리는 유럽의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주요 패션교육기관과 한국의 주요 4년제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례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패션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및 브로셔, 선행연구와 저서 등을 통해 선정국가의

교육제도 및 패션교육기관에 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09년 12월 15일~2010년 1월 8일에 걸쳐 선정된 유럽의 패션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코스 담당자와의 1차 인터뷰를 시도하여 3건의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6월 7일~7월 8일에 2차 인터뷰를 재시도하여 2건의 면대면 인터뷰와 더불어 e-mail을 통한 서면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인터뷰 거부나 교과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 기피 등으로 주로 선정교육기관의 홈페이지와 브로셔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유럽의 경우, Fashionista(N.Y.)의 The Top 50 Fashion Schools in the World(Wischhover, 2010) 리스트 중, 상위 그룹에 속한 학부 중심의 패션교육기관으로, 영국은 Central Saint Martins와 London College of Fashion, 프랑스는 Ecole de la Chambre Syndicale과 ESMOD, 이태리는 Istituto Marangoni를 선정하였으며, 15위권 이하의 최상위 순위로 26위인 POLIMODA를 추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2010 JoongAng Ilbo", 2010) 30위권 이내의 대학 중, 의류/패션 분야의 학과/전공이 있는 수도권 12개 4년제 대학 14개 학과/전공을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2개 학과/전공), 한양대, 이화여대(2개 학과/전공), 인하대, 중앙대, 건국대, 숙명여대, 가톨릭대, 홍익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패션교육기관의 패션디자인 전공 전일제 학부과정(BA 혹은 BSc와 이에 준하는 학위 및 증서)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의 내용 및 특징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해당 코스의 전반적 특성, 그리고 기타 산학연 방식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국내 패션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의 경우,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는 대체로 패션디자인 부분만을 따로 교육하기보다는 의류/패션 전반을 다루는 것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선정대학 의류/패션 관련 학과/전공의 소속과 전반적인 교과과정의 영역별 구성을 살펴본 후, 이들 중 패션디자인 영역의 비율과 교과목의 구성 그리고 기타 위의 조사항목들을 고려하였다.

이로부터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Choi, 2011).

1) 유럽의 패션디자인 교육

첫째,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학교별로 패션디자인 교육방향에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패션디자인에 집중한 전공심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학교별로 마켓 지향 혹은 독자성 지향이라는 교육방향의 특성화를 보이며, 프랑스는 오프뚜뛰르와 프레따쁘르떼 중심의 교육방향에 차별화를 두고 있고, 이태리는 특히 기성복 디자인과 평면구성 및 기술훈련에 큰 비중을 둬으로써 기술 지향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양성을 추구한다. 이들 중,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패션디자인 전공 내에서도 복종별,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전공심화교육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유럽은 근본적으로 바우하우스 이념 하에서 패션디자인을 예술의 한 영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영국은 실용적, 상업적 교육보다는 창의적, 개념적 교육을 표방하며,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의 학문적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역사성과 수공예성을 강조한다.

셋째,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대체로 학부과정 전 혹은 과정 중에 파운데이션 코스를 개설하며, 대체로 3년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학부과정 전에 별도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있고, 프랑스나 이태리는 학교에 따라 기초과정을 따로 개설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과정에서 주로 저학년에 다양한 전공기초를 다룬 후 최종 학년에서 세부 전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영국은 개별강의의 비중보다 튜터의 개별지도와 그룹 세미나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중심의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업체 후원 및 공모전과도 연계되어 있다. 또한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작업의 결과보다는 디자인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리서치 및 발전단계(R&D)를 중시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과정과 디자인 프로세스의 강조는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젝트 전개방법을 터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교과목 영역의 통섭적 진행을 도와주며, 디자인 전 과정에 걸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유도한다. 반면에, 프랑스와 이태리의 교과과정 역시 많은 업체 프로젝트를 포함하지만, 1~2학년에서 패션디자인과 의복구성에 중점을 둔 다학제적 수업을 진행한 후, 최종 학년에서 개별전공을 결정하고 졸업작품을 구성한다.

다섯째, 유럽은 전공심화교육과 동시에 다양한 학제적 교육방식을 통해 타 전공 간의 교류를 시도하며, 동일 전공 내에서도 공동 프로젝트나 공동 평가방식을

도입해 과목 간 연계와 더불어 패션디자인을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여섯째,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워크샵, 전문가 특강, 업체 프로젝트, 전문가 크리티카나 인턴십의 필수요건화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곱째, 유럽의 실무위주의 교육은 업계에서 활동 중인 교강사진의 채택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특히 이태리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2)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

첫째,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학원 등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그 소속 및 학과/전공이 다양하나, 그에 비해 교과과정은 대학별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둘째, 학과/전공별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류/패션 분야의 전 영역이 교과과정에 고루 개설되어 있다. 다만, 패션디자인 영역의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며, 이는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일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학부 저학년에 개설된 전공기초과목 이외에 별도의 파운데이션 과정이 없어 사회문화에 대한 다양성 교육 및 적성탐색은 개인의 관심이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전공기초과목은 소속별로 교과목 내용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넷째, 학년별 단계적 학습에 따른 중점부분이 있기보다는, 대체로 4년간 여러 전공과 교양과목의 선택적 수업 수강 후 최종 학년에 졸업논문 혹은 졸업작품을 진행해 학부과정 중 별도의 전공선택의 기회가 없다.

다섯째, 최근 여러 전공영역을 혼합한 학과 개설 및 공동 프로젝트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동일영역 내의 교과목 연계 이외에 여러 영역의 교과목들 간 혹은 타 미술/디자인 분야와의 학제적 교육은 여전히 개발단계이다.

여섯째, 대체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보다는 각 교과목별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과목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교과목표에 맞는 결과에 보다 중점을 둬으로써, 리서치 및 디자인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기회가 다소 협소하다.

일곱째, 업체 전문가들의 실무교육이 해외의 경우에 비해 미약하나, 최근 인턴십, 업체 특강 및 견학, 겸임 교수의 확충 등 산학연을 위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

며, 비즈니스 지향 교과목 및 글로벌 시대를 위한 영어 강의의 확충이 나타나고 있다.

3. 미국, 유럽,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의 비교

이상으로부터 미국, 유럽,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Table 5).

첫째, 미국의 주요 패션교육기관들은 아트스쿨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예술/디자인 계열의 패션디자인 전공심화과정으로 주로 비즈니스 지향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양성을 추구한다. 유럽의 주요 패션교육기관들 역시 주로 예술전문대학이나 아트스쿨 등의 형태로, 학교별로 패션디자인 교

육방향에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역시 전공심화교육을 수행한다. 즉, 영국은 패션디자인 전공 내에서도 북중별 세분화와 더불어 마켓 지향 혹은 독자성 지향이라는 교육방향의 특성화를 보이며, 프랑스는 학교별로 오뜨꾸뛰르와 프레파뎀르페 중심의 교육방향에 차별화를 두고 있고, 이태리는 기성복 디자인과 평면구성 및 기술훈련에 큰 비중을 둬으로써 기술 지향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양성을 추구한다. 한국의 경우 종합대학, 전문대학, 패션전문학원 등 여러 패션교육기관들이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 비해 거의 대다수의 종합대학에서 패션디자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속과 명칭의 학과/전공에 비해, 교과과정에 있어 학교별로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전공심화교육보다는 의

Table 5. The comparison on fashion design education in the USA, Europe and Korea

Section	USA	Europe (UK/France/Italy)	Korea
Emphasis	Commercial design for marketing or business	UK: Specialization for conceptual design vs commercial design France: Specialization for haute-couture vs prêt-a-porte Italy: Pattern making skills and commercial design	Creative & artistic design versus commercial design, but no specialization
Category	A variety of subject areas, focusing on fashion design (4-year course)	Characterization by institution and courses subdivided by specific area (mostly 3-year courses)	A variety of subject areas related to clothing and fashion (4-year course)
Foundation education	More than 50% foundation courses at 1 st year within a school or a department/major: 2D, 3D, drawing, color, and art&design practices and theories	Foundation courses before or within undergraduate courses ‡ various artistic and cultural background and creative ideation	Lack of foundation courses, except for common basic courses by some of schools of art & design
Curriculum	- Requisite or optional subjects focusing on fashion design and its related areas - Thesis project with portfolio in the 4 th year	- Emphasis by year or step and various (industrial) projects - UK: project-based class, the importance of R&D and design process - France/Italy: a major choice after multi-disciplinary courses	- Requisite or optional classes of various subject areas, rather than emphasis by year - A final dissertation or a graduation show in the 4 th year - Fashion design as a part of various subject areas
Multi-disciplinary education	Some of foundation programs and liberal arts among different majors Interdisciplinary subjects in some institutions	Collaborative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among different majors or subjects	Lack of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mong subject areas or with the other majors, but transition period to multi-disciplinary education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 Internship (optional or manatory) and additional subjects - Talk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workshops, seminars, industrysponsored project, and design critics	- Internship (mandatory) - Talk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workshops, seminars, industrysponsored project, and design critic	- Internship (optional) - Additional subjects and projects about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Faculty	Part-time expert practitioners + Full-time lecturers and professors	Many part-time expert practitioners + a few full-time lecturers and professors	More than 3-5 full-time professors and many part-time instructors + part of expert practitioners as adjunct professors

류/패션의 전 영역을 고루 다루고 있다.

둘째, 미국의 패션디자인 교육기관들은 절반 이상이 학부제 혹은 학과제 형태로 1학년에 파운데이션 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학부과정 전이나 과정 중에 파운데이션 코스를 개설하고 있는데, 영국은 학부과정 전에 별도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며, 프랑스나 이태리는 기초과정을 따로 개설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학부 저학년에서 다양한 전공기초를 다룬 후 최종 학년에서 세부 전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극히 소수의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에서 학부제를 통해 기초조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부 1~2학년에 전공기초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술문화이론이나 창의성 및 발상교육을 포함한 파운데이션 교육이 부진한 편이다.

셋째, 한국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미국과 유사성을 보여 4년 동안 전공과 교양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교과목을 구성한다. 전공교육에 있어서도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패션비즈니스, 복식사/미학, 소재과학 등과 산학연 관련 교과목 등 대체로 유사한 교과영역을 포함하며 이들 중 패션디자인과 의복구성영역의 비율이 대체로 높다. 그러나 미국이 패션디자인 전공을 중심으로 타 전공 및 교양과목들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교과목들 간의 연계보다는 패션 관련 전 영역을 고루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럽 중 특히 영국과 교육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국은 3년간 패션디자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이며 수업 진행이 강의와 함께 전문가의 개별지도와 그룹세미나 비중이 크고, 디자인 과정에 초점을 두으로써 리서치 및 발전단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프랑스와 이태리 역시 많은 업체 프로젝트를 포함하지만, 저학년에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한 후 최종 학년에서 졸업작품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경우 최종 학년 때에 개별전공을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의 의류/패션 학부과정에서 개별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없으며, 디자인 프로세스의 강조와 R&D 부문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과 유럽은 전공심화교육과 동시에 파운데이션, 전공 혹은 교양과목을 통해 다양한 학제적 교육방식을 취함으로써 타 전공 간 혹은 동일전공 내 연계를 유도한다. 학제적 교육은 최근 한국에서도 타 전공 영역들 간의 공동 프로젝트나 학과/전공 개설 등 과도

기적 시도들이 진행 중이나 아직은 발전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과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턴십을 통한 학점인정, 워크샵, 전문가 특강, 업체 프로젝트, 업체 전문가 크리틱이 있으며, 동시에 실무 중심의 교강사진의 채택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의 교과과정에서도 비록 학점인정 수준에 그치고는 있으나 현장실습과목을 증설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지향 교과과정 확대, 업체 협동 프로젝트, 업체 전문가 크리틱, 겸임교수의 확충 등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미국과 유럽의 패션교육기관들은 이미 국가적 특성상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해외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학점교류 및 분점설립과 글로벌 관련 교과목의 확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도 해외 예술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이나 교환학생제도와 더불어 특히 글로벌화에 따른 영어강의 비중의 확대와 해외 인턴십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

VI. 결론: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 제안

지금까지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주요 패션교육기관들의 패션디자인 교육과 한국의 4년제 대학의 패션디자인 교육사례를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로부터 미국의 4년제와 유럽의 파운데이션 코스와 3년제 패션디자인 학제를 혼합·절충하여 패션디자인 전공심화교육, 다학제적 교육, 산학연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모델과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았다 (Fig. 1).

첫째, 한국의 의류/패션 관련 교육기관은 패션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학교/대학별 특성화를 이루며, 학과/전공별로도 세분화를 통한 전공심화교육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우처럼 창조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개념적 패션디자인, 마케팅과 상품성 지향 패션디자인, 혹은 테크닉과 기술 지향 패션디자인 등과 같은 특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경우에도 의류/패션 분야의 백화점식 교육을 지양하고 패션디자인과 의복구성을 중심으로 한 전공에, 복식사/미학, 패션비즈니스, 소재과학, 산학연 관련 교과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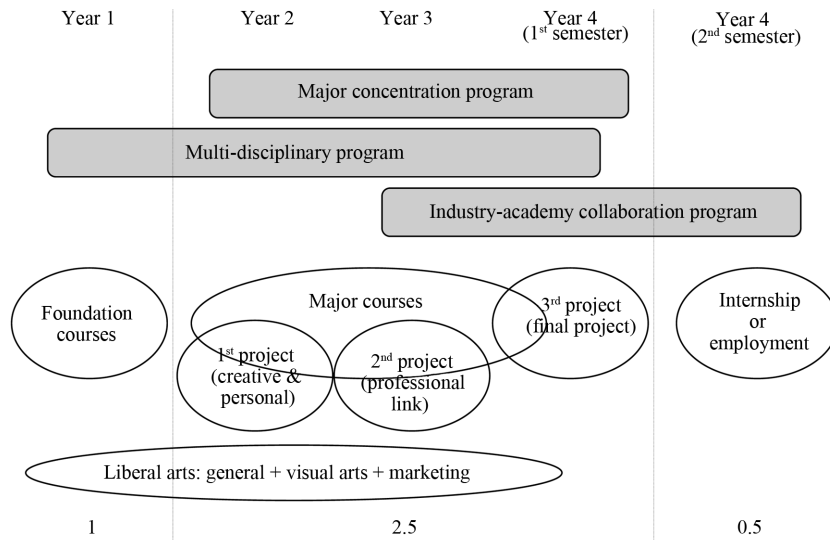


Fig. 1. Korean fashion design education model: 1 + 2.5 + 0.5 program.

을 연계함으로써 전공심화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상황에서 보다 점진적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저학년에서 교과 간 연계를 증진시키면서 여러 영역 교과목을 수강한 후 3, 4학년에서 보다 세분화된 진로와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심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과정 이전 혹은 학부 1학년 과정에서 학부제 혹은 학과제 형태로 파운데이션 코스를 개설하며, 특히 학부제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술디자인대학 소속을 전제로 다학제적 기초교육을 유도한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코스는 학과/전공 관련 기초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연구, 미술/디자인 이론, 기초조형교육, 디자인 연구방법, 디자인 관련 글쓰기와 영어 등을 중심으로 실기와 이론을 고루 포함하며, 특히 패션디자인 전공과정 전 다양한 영역의 미술/디자인에 대한 비평적·역사적 기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전공탐색과 더불어, 폭넓은 학제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 사고와 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적 이해를 유도한다.

셋째, 2학년부부터 4학년 1학기까지 2년 반동안 패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관련 영역의 교과목 개설과 통섭 교육을 통해 과목 간 연계를 유도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학년별로 개설함으로써 전공심화교육을 실시한

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개는 문제해결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며,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으로 나타난 결과 중심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점차 디자인 과정과 컨셉 개발을 강조하는 높은 수준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며, 프로젝트의 종류도 창조성에 기반을 둔 개별 프로젝트에서부터 업체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 학기의 졸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 <Fig. 2>는 앞선 선행연구와 사례연구를 토대로 한 교과목 구성별 창조적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로, 문제인식과 브레인스토밍-리서치와 분석-컨셉 설정-디자인 발상과 선택-디자인 발전과 수행(가봉-실물제작)-비평적 평가와 해결책 제안의 6단계 구성되며, 프로세스의 중간에 이전 단계로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넷째, 전공심화교육과 동시에 전공보충으로서의 교양과목의 개설이나 타 예술디자인 분야와의 공동 프로젝트 및 통합 강좌 개설로 전공교육의 보완과 다학제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양과목은 일반 교양과 더불어, 예술/디자인 학부나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타 시각예술 및 마케팅 관련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전공교육에 맥락적 기반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산학연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업체 전문가 특강 및 워크샵, 겸임교수의 확충과 더불어, 특히 전공심화과정의 프로젝트에서 산업체의 후원과 전문가 크리틱을 통한 피드백, 그리고 상품력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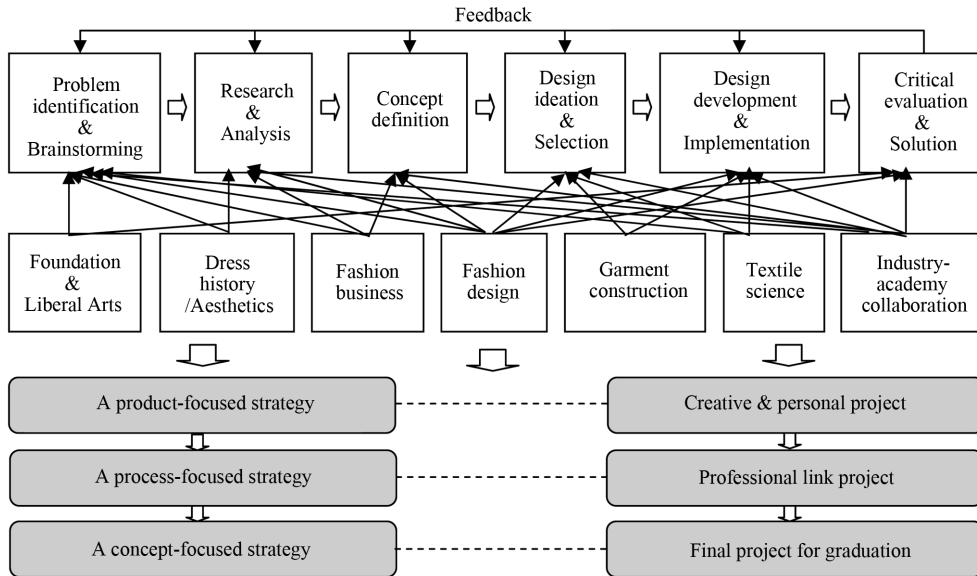


Fig. 2. Creative fashion design process by subject area.

연계를 유도한다. 동시에 4학년 2학기에는 학점이 인정되는 국내외 인턴쉽 혹은 실질적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현장실습강좌만을 개설함으로써, 사실상 4학년 말의 학생이탈을 막고 적극적으로 취업과 진로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여섯째,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해외 문화체험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영어강좌의 증설뿐 아니라, 해외 우수 패션 디자인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과 교환학생제도를 확대해 학점인정과 더불어 학부과정의 일부를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곱째,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과목의 확충과 교육방식의 변화로 미래형 디자인 인재양성을 유도한다.

여덟째,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패션디자인의 경쟁력을 위해, 디자인과 연결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파운데이션, 전공, 교양과목을 통해 이루어져 국가정책성을 살릴 수 있는 창조적 패션디자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패션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선진국형 문화창조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패션교육기관은 산업 환경과의 밀착된 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의 발굴 및 양성과 더

불어 우수한 인재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와 발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선행된 디자이너 교육을 통해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디자인 업계의 현장 추세에 맞춘 교육과정의 구성과 글로벌 전략을 통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mes, A. (2008). Fashion design for a projected futur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6(2), 103-118.
-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professional fashion educational institutions. (2003, April 29). *Samsung Design Net*. Retrieved December 10, 2009, from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list.asp?an=247>
- Choi, Y. M. (1997). A study on the systematic, intuitive approach for fashion desig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5(1), 71-83.
- Choi, Y. M. (2001). *Generating creative idea and developing model in fashion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K. H. (2011). A comparative study on fashion design education in Europe and Korea-Focus on the educational cases in the UK, France, Italy and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10), 1199-

- 1214.
- DeFonge, J. O. (1984). Forward: The design process. In S. M. Watkins (Ed.), *Clothing: The portable environment* (pp. vii-xiii).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Dickerson, K. G., & Clowes, D. A. (1982). Curriculum move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grams from four-year to two-year colleg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 18-23.
- Do, K. H. (1996). 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developing process of costume design applied to the method of morphological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3), 401-413.
- Fiore, A. M., Kimle, P. A., & Moreno, J. M. (1996). Aesthetics: A comparison of the state of the art outside and inside the field of textiles and clothing. Part one: Creator and creative proc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1), 30-40.
- Fiore, A. M., & Ogle, J. P. (2000). Facilitating students' integration of textiles and clothing subject matter. Part one: Dimensions of a model and a taxonom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1), 31-45.
- Han, S. J., & Kim, E. Y. (2007). *Fashion design*. Seoul: Kyohakyongusa.
- Hanks, K., Belliston, L., & Edwards, D. (1977). *Design yourself*. Los Altos, CA: William Kaufmann.
- James, A. (2007). Reflection revisited: Perceptions of reflective practice in fashion learning and teaching. *Art, Design & Communication in Higher Education*, 5(3), 179-197.
- Karpova, E., Marcketti, S. B., & Barker, J. (2011). The efficacy of teaching creativity: Assessment of student creative thinking before and after exercis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9(1), 52-66.
- Koberg, D., & Bagnall, J. (1981). *The universal traveler: A soft-systems guide to creativity, problem-solving and the process of reaching goals*. Lost Altos, CA: William Kaufmann.
- Ku, Y. S., Kim, J. W., Park, K. A., Park, K. H., & Choo, T. G. (1999). Analysis of fashion curriculum in 4-year colleges: Cross-national comparison of Korea, USA, UK, Japan & Hong Ko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1), 19-32.
- LaBat, K. L., & Sokolowski, S. L. (1999). A three-stage design process applied to an industry-university textile product design projec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1), 11-20.
- Lamb, J. M., & Kallal, M. J. (1992). A conceptual framework for apparel desig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0(2), 42-47.
- Laughlin, J., & Kean, R. C. (1995). Assessment of textiles and clothing academic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3), 184-199.
- Lee, B. D. (2006). A study on fashion design pedagogy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With emphasis on intu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3), 487-496.
- Lee, H. J. (1999). *Fashion design*. Seoul: Kyohakyongusa.
- Moon, C. (2006). A study on properties of foundation degree of England, America and possibilities of basic design education. *기초조형학연구*, 7(3), 263-271.
- Ogle, J. P., & Fiore, A. M. (2000). Facilitating students' integration of textiles and clothing subject matter. Part two: Substantiating the applicability of proposed structur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2), 73-89.
- Park, H. H. (2004). *New York*. Seoul: Angraphics.
- Pink, D. H. (2007). *A whole new mind: Having from the information age to the conceptual age* (M. C. Kim, Trans.) Seoul: The Korea Economic Daily & Business Publication Inc.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Shin, J. S. (2006). NY fashion industry and FIT education. *Fash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3, 75-83.
- Shreeve, A., Bailey, S., & Drew, L. (2003). Students' approaches to the 'research' component in the fashion design project: Variation in students' experience of the research process. *Art, Design & Communication in Higher Education*, 2(3), 113-130.
- The education system in USA. (2010, April 12). *NaverWikipedia*. Retrieved August 27, 2011, from <http://ko.wikipedia.org/wiki/>
- Watkins, S. M. (1988). Using the design process to teach functional apparel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10-14.
- Wischhover, C. (2010, December 8). The top 50 fashion schools in the world: The full list. *Fashionista*. Retrieved February 20, 2011, from <http://fashionista.com>
- 2010 JoongAng Ilbo university ranking. (2010, September 28). *JoongAng Ilbo*. Retrieved February 20, 2010, from <http://www.jedi.re.kr>